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1호 [무제 제26195호] 주제 107 (2018)년 11월 17일 (토요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모두 다 뜻깊은 올해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 백절불굴의 공격정신으로 안아온 자랑찬 성과

#### 홍건도간석지 2단계 1구역 1차물막이공사 결속

시해의 후진도간석지 2단계 건설장에서 자랑찬 승전소식이 전해졌다.

불타는 애국충정과 지역경쟁,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단칸을 뚫고세워 조국의 대지를 넓혀가는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지난 15일까지 300여만㎡의 막돌과 도장으로 수성리제방을 쌓아 드디어 홍건도간석지 2단계 1구역 1차물막이공사를 결속하는 눈부신 혁신을 창조하였다.

결과 1600정보의 세방을 열고 방안에 걸다전제로 홍건도간석지 2단계건설을 5개년건설기간에 완공할수 있는 돌과구름 열아홉있으며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밑천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자랑찬 성과는 조국강산을 살기 좋고 후손한테 번영할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용대한 대자연개조사업과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번영의 황로를 열어나가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자적 혁명불굴의 투쟁기풍이 안아온 기적적승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들어나 산도 높이고

바다도 매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이며 기쁨입니다.》

홍건도간석지건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혹을 받판하고 방의 구상을 만들어 후손한테의 행복의 미래를 넓혀나가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만민대대의 애국사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0년전 동원군 안산리로부터 선진군 신미도까지 여러개의 섬을 연결하는 홍건도간석지 건설할때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조국의 대지를 넓혀가는것을 나라의 통일번영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한 만민대대의 애국사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원공된 대자연개조사업을 몰아보시면서 홍건도간석지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확히 밝혀주시었다.

간석지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어 여러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은 홍건도간석지 2단계 3구역 1차물막이공사를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 끝낸 기세를 높이

10월 1구역공사에 진입한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대대적 공격정신으로 올해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내어 완강히 실현하였다.

일군들은 자력경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공사에 필요한 연유와 자재, 차마피 등을 자체로 보장하면서 굴착기와 화물자동차, 붐도끼를 비롯한 불철설비들을 만가동시켰다.

공사의 첫 공영인 막돌과 도장을 보장하기 위한 물적조건이 떨어졌다.

경도를 타고갔을 장중, 다사, 보산간석지건설분사일군들에서는 제석조진이 불리한 여세에도 합리적인 굴진방법과 파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굴진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온 힘을 넣어 높은 굴진질적을 내면서 막돌과 흙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였다.

안산리에서 전개된 석회, 파산, 로하간석지건설분사일군들, 신의주간석지건설분사일군들과 전두원들도 도장굴진속도이자 제방건설속도라는것을 명심하고 압축기를 정상가동시키면서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막돌과 비석을 중단없이 보장하였다. 그리고 제방도로관리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화물자동차들의 정상수행률을 보장함으로써 제방건설속도를 높여나갔다.

안산리에서 무른 강랑층에 의한 압축기에 문제가 생기자 2-3차례씩 제방이 주지않군하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대담하게 마감막이구간을 옮길것을 결심하고 혁신적인 작전과 지휘를 전개함으로써 공사를 중단도 중단 없이 힘있게 내밀었다.

몇달동안 흘려 바닷바람공사를 해놓은 마감막이구간이 울거전에도 맞게 살비정수구간의 일군들과 전두원들은 자동부림베의 리용률을 2배로 높이기 위한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인민의 투쟁정신이며 기쁨입니다.》

홍건도간석지건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혹을 받판하고 방의 구상을 만들어 후손한테의 행복의 미래를 넓혀나가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만민대대의 애국사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0년전 동원군 안산리로부터 선진군 신미도까지 여러개의 섬을 연결하는 홍건도간석지 건설할때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조국의 대지를 넓혀가는것을 나라의 통일번영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한 만민대대의 애국사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원공된 대자연개조사업을 몰아보시면서 홍건도간석지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확히 밝혀주시었다.

간석지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어 여러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은 홍건도간석지 2단계 3구역 1차물막이공사를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 끝낸 기세를 높이

경향도의 청년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에 삶의 뿌리를 내리 혁명의 성지를 빛내려 할 결의고 삼지연군에 자원전투에 참가하는 기쁨을 느껴서 해고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이 당의 권위를 앞장서서 옹위하고 당의 부름이리만큼 힘있게 달려나오라!》

창조하는 민중적 전위대, 무장투쟁의 거인들, 온몸을 바쳐준 투사들, 우리 당의 청년들! 시시상상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혁명에 대한 뚜렷한 의욕이 있다. 이 청년들의 투쟁정신과 혁명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라. 혁명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라. 혁명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라.

경향도의 청년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에 삶의 뿌리를 내리 혁명의 성지를 빛내려 할 결의고 삼지연군에 자원전투에 참가하는 기쁨을 느껴서 해고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이 당의 권위를 앞장서서 옹위하고 당의 부름이리만큼 힘있게 달려나오라!》

창조하는 민중적 전위대, 무장투쟁의 거인들, 온몸을 바쳐준 투사들, 우리 당의 청년들! 시시상상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혁명에 대한 뚜렷한 의욕이 있다. 이 청년들의 투쟁정신과 혁명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라. 혁명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라. 혁명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라.

경향도의 청년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에 삶의 뿌리를 내리 혁명의 성지를 빛내려 할 결의고 삼지연군에 자원전투에 참가하는 기쁨을 느껴서 해고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이 당의 권위를 앞장서서 옹위하고 당의 부름이리만큼 힘있게 달려나오라!》

창조하는 민중적 전위대, 무장투쟁의 거인들, 온몸을 바쳐준 투사들, 우리 당의 청년들! 시시상상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혁명에 대한 뚜렷한 의욕이 있다. 이 청년들의 투쟁정신과 혁명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라. 혁명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라. 혁명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라.

경향도의 청년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에 삶의 뿌리를 내리 혁명의 성지를 빛내려 할 결의고 삼지연군에 자원전투에 참가하는 기쁨을 느껴서 해고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이 당의 권위를 앞장서서 옹위하고 당의 부름이리만큼 힘있게 달려나오라!》

창조하는 민중적 전위대, 무장투쟁의 거인들, 온몸을 바쳐준 투사들, 우리 당의 청년들! 시시상상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혁명에 대한 뚜렷한 의욕이 있다. 이 청년들의 투쟁정신과 혁명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라. 혁명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라. 혁명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라.

경향도의 청년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에 삶의 뿌리를 내리 혁명의 성지를 빛내려 할 결의고 삼지연군에 자원전투에 참가하는 기쁨을 느껴서 해고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이 당의 권위를 앞장서서 옹위하고 당의 부름이리만큼 힘있게 달려나오라!》

창조하는 민중적 전위대, 무장투쟁의 거인들, 온몸을 바쳐준 투사들, 우리 당의 청년들! 시시상상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혁명에 대한 뚜렷한 의욕이 있다. 이 청년들의 투쟁정신과 혁명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라. 혁명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라. 혁명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라.

## 중앙양묘장현대화공사 적극 추진

### 국토환경보호성에서

나무모생신의 과학화, 공영화, 집약화수준을 더욱 높여 생산을 늘리는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국토환경보호성에서 중앙양묘장을 보다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중앙양묘장에서는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영화, 집약화수준을 더욱 높이고 철저한 나무모생산관리를 거쳐 수확하여 산림복구전투에서 현무 단단히 하여야 합니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은 나무모생산과 양묘장건설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중앙양묘장현대화공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은 나무모생산과 양묘장건설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은 나무모생산과 양묘장건설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중앙양묘장현대화공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은 나무모생산과 양묘장건설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은 나무모생산과 양묘장건설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중앙양묘장현대화공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은 나무모생산과 양묘장건설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은 나무모생산과 양묘장건설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중앙양묘장현대화공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은 나무모생산과 양묘장건설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은 나무모생산과 양묘장건설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중앙양묘장현대화공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은 나무모생산과 양묘장건설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은 나무모생산과 양묘장건설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중앙양묘장현대화공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은 나무모생산과 양묘장건설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은 나무모생산과 양묘장건설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중앙양묘장현대화공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은 나무모생산과 양묘장건설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은 나무모생산과 양묘장건설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 신의주가방공장건설 마감단계

### 평안북도에서

신의주가방공장건설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신의주가방공장건설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들어나 산도 높이고

신의주가방공장건설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신의주가방공장건설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들어나 산도 높이고

신의주가방공장건설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신의주가방공장건설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들어나 산도 높이고

신의주가방공장건설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신의주가방공장건설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들어나 산도 높이고

신의주가방공장건설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신의주가방공장건설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들어나 산도 높이고

신의주가방공장건설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신의주가방공장건설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들어나 산도 높이고

신의주가방공장건설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신의주가방공장건설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들어나 산도 높이고

신의주가방공장건설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신의주가방공장건설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들어나 산도 높이고

##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 매일 십여만kWh의 전력을 증산 원산청년발전소에서

원산청년발전소에서 매일 십여만kWh의 전력을 증산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원산청년발전소를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들어나 산도 높이고

원산청년발전소에서 매일 십여만kWh의 전력을 증산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원산청년발전소를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들어나 산도 높이고

원산청년발전소에서 매일 십여만kWh의 전력을 증산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원산청년발전소를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들어나 산도 높이고

원산청년발전소에서 매일 십여만kWh의 전력을 증산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원산청년발전소를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들어나 산도 높이고

원산청년발전소에서 매일 십여만kWh의 전력을 증산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원산청년발전소를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들어나 산도 높이고

원산청년발전소에서 매일 십여만kWh의 전력을 증산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원산청년발전소를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들어나 산도 높이고

원산청년발전소에서 매일 십여만kWh의 전력을 증산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원산청년발전소를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들어나 산도 높이고

원산청년발전소에서 매일 십여만kWh의 전력을 증산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원산청년발전소를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들어나 산도 높이고

## 누에고치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 돌파

### 자강도에서

자강도에서 올해 불리한 날씨에 계속되는 속에서도 앞선 누에고치생산량을 돌파하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강도에서 올해 불리한 날씨에 계속되는 속에서도 앞선 누에고치생산량을 돌파하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들어나 산도 높이고

자강도에서 올해 불리한 날씨에 계속되는 속에서도 앞선 누에고치생산량을 돌파하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강도에서 올해 불리한 날씨에 계속되는 속에서도 앞선 누에고치생산량을 돌파하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들어나 산도 높이고

자강도에서 올해 불리한 날씨에 계속되는 속에서도 앞선 누에고치생산량을 돌파하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강도에서 올해 불리한 날씨에 계속되는 속에서도 앞선 누에고치생산량을 돌파하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들어나 산도 높이고

자강도에서 올해 불리한 날씨에 계속되는 속에서도 앞선 누에고치생산량을 돌파하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강도에서 올해 불리한 날씨에 계속되는 속에서도 앞선 누에고치생산량을 돌파하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들어나 산도 높이고

자강도에서 올해 불리한 날씨에 계속되는 속에서도 앞선 누에고치생산량을 돌파하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강도에서 올해 불리한 날씨에 계속되는 속에서도 앞선 누에고치생산량을 돌파하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들어나 산도 높이고

자강도에서 올해 불리한 날씨에 계속되는 속에서도 앞선 누에고치생산량을 돌파하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강도에서 올해 불리한 날씨에 계속되는 속에서도 앞선 누에고치생산량을 돌파하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들어나 산도 높이고

자강도에서 올해 불리한 날씨에 계속되는 속에서도 앞선 누에고치생산량을 돌파하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강도에서 올해 불리한 날씨에 계속되는 속에서도 앞선 누에고치생산량을 돌파하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들어나 산도 높이고

자강도에서 올해 불리한 날씨에 계속되는 속에서도 앞선 누에고치생산량을 돌파하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강도에서 올해 불리한 날씨에 계속되는 속에서도 앞선 누에고치생산량을 돌파하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성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들어나 산도 높이고











# 어 버 이 사 랑 길 이 전 하 며 인 민 의 웃 음 꽃 피 워 가 리

## 향 만 루 대 중 식 당 을 찾 아 서

아마도 이 땅에 사는 누구에게든 제일 좋은 자리에 제일 훌륭한 가게 일터인 건축물들이 어떤 것인가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대답할 것이다.

인민을 위한 대중봉사기지가 라고.

어머니당의 사랑과 은정속에 발원복음 이르는 곳마다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대중봉사기지가 볼가치 있는 향만루대중식당도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의 진모습은 당이 꾸려놓은 조국의 모습에 있고 언제나 행복에 겨워있는 인민의 모습에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물론 외국의 벗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있는 이 식당은 늘 손님들로 붐비고, 머구기 이례의 가을에는 특별히 손님들이 많았는데 그중 저지 않은 사람들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기 위하여 평양에 왔던 각 지방의 인민들이라고 한다.

격조와 고아름에 넘쳐 그들이 남긴 단영분의 끝을 잃어가는 파니 절로 가슴이 후터워졌다.

우리 인민에게 다른 나라의 음식까지 맛보게 하려고 고품질 음식들을 세워서주고 녹은 가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봉사하도록 해주신 어머니장군님의 사랑에 목이 맨다는 그들의 한결같은 지성의 도로를 안이보느라니 적연의 최옥순동무가 하던 말이 다시금 되새겨졌다.

《12월이 가까와올수록 어머니장군님 생각 더욱 간절해 집니다. 8년전 12월 홀홀히 개진된 우리 일터를 찾아주신 그날 장군님께서 향만루대중식당이라는 뜻깊은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까.》

자녀나나 그럴면 어머니장군님을 20여년만에 또다시 식당에 모셨던 그날은 흥기도 추웠다고 한다.

아직은 종업원들이 일터에 들어서기도 전에 식당에 찾아오신 어머니장군님을 똑같이 모신 행복으로 일꾼들은 자부 눈물이 젖어올랐다.

복과 며칠전까지 한하여도 할복도주기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적노사를 격정속에 받아안으며 불행추이의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 못 들던 그들이었던 것이다.

북방의 추위가 아직도 스며있는 것만 같은 아늑함을 입으시고 연희정호에 불어오신 어머니장군님께서는 연희정호를 이렇게 잘 꾸려놓을 줄을 알고 있었나 하시면서 두드레에서 노예도 부를 수 있게 하였는데 잠깐이라고 기쁨을 감지 못하시었다.

사실 연희정호는 처음에 일반 손님들이 아니라 국가연회를 비롯한 중요한 행사들을 보장하기 위해 꾸려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식당이 한창 운영되던 어느날 봉사정형에 대하여 로해하신 어머니장군님께서 연희정호를 누구나 다 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운영을 조치할 취해 주셨던 것이다.

12월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20여년전 그때처럼 또다시 식당의 6호실을 다녀가셨었다.

인민들에게 봉사하는 음식을 준비하시며 그 가격까지 친히 알아보신 장군님께서는 가격이 적당하다고 하시면서 훌륭하게 개진된 식당에서 인민들이 녹은 값으로 식사하고있는데 대하여 더없이 기뻐하시었다.

하루 수천기의 봉사능력을 갖춘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렇듯 훌륭한 대중봉사기지가 어떻게 일떠졌고 스스럼없이 받아안는 특색있는 음식들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아는 모를 것이다.

주제 76(1987)년 어느날 경흥거리에 갖 푸러진 봉사당들을 돌아보시던 어머니장군님께서 일꾼들에게 평양에 옥류관, 청류관과 같은 유명한 식당이 있고 창평거리음식점을 비롯하여 수많은 음식점이 생겨난데다가 오늘날은 이렇게 야시장까지 마련되었으니 우리 근로자들이 매우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다른 나라 음식과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하나쯤에 건설하자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새로 건설하는 식당에서는 인민들이 우리 불을 가지고 다른 나라 음식을 마음대로 사먹게 하자고 하는 어머니장군님의 가르침을 받아안았을 때 일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나라의 민족음식을 봉사한다면 그에 필요한 전차제들을 들여야 하는데 수치를 맞추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앞으로 광복거리에 건설하는 식당은 인민들을 위해 녹은 가격으로 운영하게 되는 조건에서 리용가능한 재료는 병과 같다고 하시었고, 거기에서는 이익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며 어머니장군님께서 하는 무는 사업이나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인민의 리익에 맞게!

현안이 숭고한 그 사랑에 발붙여 이 땅에는 자본주의의 거품이 녹은 상상으로 못할 영리를 따지지 않는, 오직 인민들의 행복한 식생활만을 위하여 복무하는 헌

데적인 금양기지가 건설되게 되었다.

처음 설계일꾼들은 식당의 위치를 광복거리의 구서진 곳에 선정했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아신 어머니장군님께서서는 몸소 식당위치를 지금의 향만루대중식당이 있는 곳으로 옮겨주시면서 식당이 광복거리중심에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광복거리살림집들에 사할들이 일사하기 전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여러차례에 걸쳐 설계를 보아주시고 전후역있는 건설부문에 보내 주시며 수시로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원공의 납을 앞당겨 주신 어머니장군님의 사랑은 식당이 완공후에 더욱 세심하고 뜨거워졌다.

일꾼들이 피려한 요리공들을 채용하고 있었는 것을 로해하신 어머니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위해서는 걸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속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맨질과 같은 일반음식을 많이 만들어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걸린 시대의 움직임에 나가기를 당부하셨는데 이 있었을 때 맛과 특색이 좋았다고 하시면서 회상하신다는 뜻깊은 교시를 하시었다.

아무리 현란한것이라 하더라도 사할들에게 리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하시면서 막달시공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지도해주시어 오랜 시간엔 걸쳐 식당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교시하시었다.

아마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위치에 식당을 짓자면 땅값만 하여도 많은 돈이 들것이라고, 자신께서 광복거리형상안

을 볼 때 식당부지를 제일 좋은 자리에 잡아주었다고 하시며 인민의 봉사당에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었다. 그러면서도 풍만한 향기가 넘쳐나는 집이라는 의미를 담아 식당의 이름을 《향만루식당》이라고 권하시어 주시었다.

소한제일의 잔미담 세차던 그날은 주제 78(1989)년 1월 어느날이었다.

당시 향만루식당의 건설 전과정에 대하여 남다른 것으로 보게 된 한 외국인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였다.

《한 나라의 명도자가 인민들의 생활을 해리시어 이렇듯 훌륭한 식당을 마련해주고 이 용까지 지어주시니 참 꿈만 같습니까. 이 세상에 들도 없는 위대한분을 자기의 명도자로 모신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습니다.》

향만루식당은 그해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개업하였다.

손님들은 물론 접대원도 요리사도 너무나 이격과 흥분으로 설레였던 듯 있을 그날을 돌이켜보면 흥분로리시던 주창장 리수준동무는 전 30년전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렸다.

금양대학을 졸업하고 식당에 배치받은 그는 당시 제일 나 어린 요리사였다고 한다.

당의 은정어린 조치로 외국의 기술자들에게서 품을 들여 로리관다는 범을 배운 그였기에, 그 원자를 하나하나에 잘 따라다니며 오면 시건엔 걸쳐 식당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교시하시었다.

아마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위치에 식당을 짓자면 땅값만 하여도 많은 돈이 들것이라고, 자신께서 광복거리형상안

# 새 형의 무궤도전차가 제작되기까지

## 평성시려객 자동차사업소 일꾼들과 종업원들

평성시려객자동차사업소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정신을 지니고 올해에 이르러 무궤도전차를 개조한데 이어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성과를 사업소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한데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넓혀나가야 꼭박박시켜 집니다.》

평성시려객자동차사업소는 말그대로 려객운수사업을 기쁘게 하는 단위이다. 그런데 만공 이 사업소에서 꾸려야 무궤도전차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여 맞갈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일꾼들은 무궤도전차 제작을 자기들의 일로 간주하고 내밀기로 하였다.

제기 가 있었다.

원래 사업소일꾼들은 이미 있던 무궤도전차를 개조할 목표를 제기하고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때에 무궤도전차

를 개조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니 제기되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갔다. 그리하여 사업소에서는 짧은 기간에 무궤도전차들의 외장 품을 일식으로 갖추고 도장도 앞질렀게 하여 새것처럼 개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대군인 홍철길지배인은 이복된 성과에 만족할 수 없었다. 지난 1월말 몸소 새형의 무궤도전차에 오르시어 그 성능을 알아보시며 부족점이 없는가를 일일이 살펴보시면서 그토록 마음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숭고한 뜻을 따르자면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았음이였다.

우리 당이 바라는 일, 인민을 위한 일인데 무엇을 주저하랴, 우리도 무궤도전차를 만들어 인민들이 리용하게 하자.

지배인의 정신은 확고했다.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는 사업소일꾼들의 의견을 지지하며 때를 이주했다. 도에서는 다른 단위들에 무궤도전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들을 자재로 제공하도록 하여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일이 흘렀지만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다.

사업소의 일꾼들은 자체도 제작도 다 맡아하기로 하였다. 원본공장을 제작하는 무궤도전차를 제작하고 하니 걸린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무궤도전차수리기지배에 없는 사업소에서 불질기술적도 데도 인양하고 제작경험도 전혀 없었다. 이로부터 종업원들은 주저하는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진심을 주는것이 필요했다. 지배인은 기술자, 기능공들과 함께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다녀오기로 하였다.

이들은 공장을 돌아보며 그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장의 기술개선을 위하여 생산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성과와 경험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제할기로 해와야 하였다는 정신이 확고해진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전사의 각오를 가지고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만드는 데 달려들었다. 그때부터 현장에서는 수시로 기술회의가 진행되였다. 때와 노력이 겸합시루며 그들은 서로의 창조적재능과 힘을 합쳐가면서 각자 맡은 바를 맡고 달려들었다.

사업소에서는 이미 축적한 경험과 기술에 토대하여 평성시려객공대학과와 창조적협조 밑에 전기를 철학인민으로 무궤도전차의 성능을 더욱 개선할 수 있게 새로운 속도조종장치를 받아들이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종업원들은 지구장비를 제작하여 차량의 정밀도를 높이고 무궤도전차의 앞부분도 종전과 다른 형식으로 새롭게 하였다. 그리고 태양발전지판을 설치하여 무궤도전차의 조명과 텔레비전은 물론 자동차용어디에 필요한 전기를 보장하게 하였다.

결과 사업소에서는 처음으로 제작기업을 질만으로 줄이면서 더 훌륭히 만들어내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뜻깊은 올해에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무궤도전차제작과정을 통하여 이력공들과 종업원들이 심장으로 제득한 리가 있다. 그것은 당에서 격려하는 문제를 한분대고 전사적으로 해결하는데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 있으며 오직 자기들이 책임이라는 신념을 만장일치로 띠면서 할 때 불가불을 모르는 정신력의 강자가 된다 는 것이다.

특파기자 오철현

합흥시인민병원에서 고려치료로 사업에서 종업원들은 고 려치료를 잘하고있는 단원리병원의 하나이다. 병원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치료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번오시켜놓고 선진적인 치료방법과 수혈을 적극 탐구하여 의료봉사사업에서 고려치료비율을 훨씬 높여 나가고 있다.

얼마안데는 고려치료 부문에 대한 부여가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고려치료의 인민을 위해 배합하여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보건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방침입니다.》

이곳 고려치료부문을 사업을 추진해오던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가지는 의학과학성과를 이룩하는 사업의 양성에 인민이 일꾼들이 서는것이다. 지난 시기 거둔 의학과학성과를 담당한 김진성부장을 비롯한 과학자 일꾼들이 고심어린 노력을 바쳐 내놓은것들이었다. 사실 냇년전까지만 하여도 고 려치료부문 사업은 웅망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치료력도 부족하고 치료조건과 환경도 현저히 뒤떨어졌던데다가 머구기 의료일꾼들의 임상수준이 높지 못하여 환자들에서 적지 않은 애로를 느끼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부원장으로 임명된 김진성부장은 치료조건과 환경을 대담하게 개선시키는 것과 함께 의료일꾼들의 자질을 높이는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갈 높은 목표를 세웠다.

일부 의료일꾼들이 치료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는 조건에서 자질향상을 위한 학습은 종위로 비추는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놓았을 때 부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치료조건과 환경개선도 중요 합니다. 그러나 불질기술적도대를 훈련히 갖추기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것이 의료일꾼들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치료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고비율을 높이지만 결정적으로 의료일꾼들의 실력이 높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에 광활부머가 실현적방법으로 앞장서고 있는것을 김진성부장은 실력도 높이고 이론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김과 고려치료부문의 학수유자태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이곳 병원의 고려치료부문 사업에서 좋은 점은 또한 물고기



수력발전소의 수차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에 큰 힘을 쏟고있다. -합흥수리역대학에서-

### 로씨야련방 청년사업국대표단 도착

알렉산드르 부가예프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 청년사업국대표단이 1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 정영원동지

###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16일(일요일) 오전 평양관에서 평양철도국체육단, 대성산체육단

# 돌격대원들을 위해 바치는 진정

## 박천군 읍 237인민반 장수려동무의 가정에서

얼마전 우리는 박천군의 한 돌격대를 찾게 되었다. 청진강기슭에 뽕밭을 조성하고 누에고치생산을 늘일게 위한 위대한 수명님의 유훈정신을 위한 투쟁에서 그리고 군에서 제기되는 여러 건설사업에서도 언제나 앞장서서 큰 몫을 해쳐온 돌격대였다.

돌격대원들이 짧은 기간에 건설을 끝낸 목표를 세우고 밤낮이 따로 없는 전후를 벌이고있던 어느날 한 녀인이 성의껏 마흔한 많은 지원물자를 가지고 진장에 찾아왔다.

진장시내에는 푸짐한 음식으로 돌격대원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작정이 한창일 때에는 돌격대원들의 일손을 도와 삽질도 하였으며 휴식장에는 노예도 불러주는 그의 진정은 돌격대원들의 가슴을 후련케 해주었다. 그후에 그는 다른 녀인들과 함께 여리치려나 건설장을 찾았다.

그때로부터 시작된 지원의 열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변함없이, 더욱 뜨겁게 이어졌다.

돌격대원들을 위해 바치는 진정

박천군 읍 237인민반 장수려동무의 가정에서

들의 추억은 뜨거웠다. 여러해전 군의 지방공영에서 큰 몫을 맡아하고있는 어느 한 기업체가 낮은 모습을 띠어버리고 새로 일떠설 때였다.

돌격대원들이 짧은 기간에 건설을 끝낸 목표를 세우고 밤낮이 따로 없는 전후를 벌이고있던 어느날 한 녀인이 성의껏 마흔한 많은 지원물자를 가지고 진장에 찾아왔다.

진장시내에는 푸짐한 음식으로 돌격대원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작정이 한창일 때에는 돌격대원들의 일손을 도와 삽질도 하였으며 휴식장에는 노예도 불러주는 그의 진정은 돌격대원들의 가슴을 후련케 해주었다. 그후에 그는 다른 녀인들과 함께 여리치려나 건설장을 찾았다.

그때로부터 시작된 지원의 열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변함없이, 더욱 뜨겁게 이어졌다.

그는 장정이 일어났다. 며칠 동안 활식을 잊고 뛰어나며 많은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어 온정속에 기여하였다. 이런 나날이 흐르는 과정에 돌격대원들과 장수려동무는 혈육의 정으로 더욱 뜨겁게 어이게 되었다.

2년전 제대군인돌격대공작의 혼신투쟁을 세 질일체로 되나선 이야기도 뜨겁다.

그때 장수려동무는 먼저 간 그의 부모의 마음까지 함께 가족과 함께 성의껏 미련해 메갈감을 들고 약혼식에도 참가하였고 결혼상도 잘 지켜주어 사랑을 감동시켰다. 다음에는 그들이 낳은 첫지식의 동생 함수생까지 잘 지켜주었다.

함수생학을 하는 돌격대원들이 때때로 집으로 갈때는 그들의 손에 조금이라도 들려보내려고 애썼고 그들이 이공작업을 나갈

때에는 자기 손으로 마련한 음식감도 더 보내주곤 한 것이다.

봉나루를 키우는 청년작업반 건물이 건설될 때에는 여러 녀성들을 불러들이고 그들과 함께 지원사업용 용이 크게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으며 청년지원반원들이 봉나루 모직정장을 할때와 가정의 리만방을 잘 꾸리고 나무모를 심어 해마다 수많은 봉나루목도 생산하여 보내주었다.

이런 사실들을 다 전하자면 끝이 없다.

장수려동무는 이 땅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녀성이자, 하지만 그의 정신세계는 결코 평범치 않다. 사회와 집단을 위해 바치는 진정에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찾을 줄 아는 그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고결한것인가.

돌격대의 어머니는 오늘날 자식들을 위한 평생의 걸, 헌신의 길을 변함없이 여세에 걸고있다.

본사기자 김성민

성공과 오를수록 일꾼들은 나무공자확보와 관수공작업을 더욱 원만히 세우기 위한 사업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정신세계는 결코 평범치 않다. 사회와 집단을 위해 바치는 진정에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찾을 줄 아는 그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고결한것인가.

돌격대의 어머니는 오늘날 자식들을 위한 평생의 걸, 헌신의 길을 변함없이 여세에 걸고있다.

본사기자 김성민

### 대관산리명령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모든 산물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민시킬 예국의 마음을 안고 다음해 나무모양산준비를 잘해나가고있다.

### 지력 개선에 큰 힘을

장에서 집중은 유기질비료생산에 큰 힘을 쏟고있다. 종업원들은 나무모양준비나 준비를 다그치는 드라마 속에서 돌격대원들을 빠짐없이 찾아







# 우리 공화국은 자주로 존엄높은 국가이다

# 조선은 가까운 앞날에 더욱 훌륭히 발전하게 될 것이다

## 국제사회의 목소리

오늘 우리 조국은 존엄높은 자주의 나라, 주권의 조국으로 세계에 그 위용을 높이 떨쳐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과 경제체제왜곡에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가 정한 길로 때침은흔히 나아가고있다.

경제하는 최고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치사상강국으로서의 우리 조국의 불패의 위용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자주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어가고있는데서 뚜렷이 표시되고있습니다.』

『우리의 자주정치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독특하고 창조적인 정치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승리만을 안아올수 있게 하는 필승의 보검이다.』

자주정치에 그 어느 나라나 비한다고 하여 폄하되는 것은 아니나, 자주적인 지도사상을 가지고있으며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불패의 힘을 지닌 나라만이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면서 자기 인민의 요구와 리익, 자기 나라 발전에 맞게 정책을 할수 있다.

천시계 국제부대에 있어나고있는 복잡한 사태들은 우리 당과 국가가 자주적 원칙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정당화되었는지 현실로 보여주고있다.

태를 물고 새대를 이어가며 살아오던 세명을 떠나 세계 각국을 방랑

하고있는 중동지역 나라 인민들이 겪고있는 비참한 운명은 자주정치로써 심화되지 못하고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묶어내어주지 못하면 종당에서는 나라의 민족이 비극적운명을 강요당하게 된다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명도민에 우리 나라는 당과 국가관용에서 혁명적원칙, 자주적대내를 확고히 견지해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20세기 력의 흐름을 자주의 길로 이끄시는 인민대중이 시대와 굴곡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새 역사를 펼쳐주시었다.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과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간섭, 위협과 음모에도 흔들림없이 투철한 반제국적원칙, 사회주의원칙을 견지하며 모든 로선과 정책을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우리식으로, 우리의 신념에 따라 제시하고 관철해나갔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세계 많은 나라의 인사들은 우리 당과 국가의 자주적인 정책의 정당성을 절감하면서 우리 공화국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이 반제자주를 위한 진보적인류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고 평가하였다.

혁명과 건설의 진행에서 자주의 신념, 자력적 원칙을 지킨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편이여 붕괴되고 진보적인류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가가는 주체조선의 힘찬 전진에서 힘을 얻으며 자주의 길로 확실성있게 나아가고있다. 세계도에서 주체조선의 자주정치를 따라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지난 6월 핀란드의 헬싱키에서는 《북유럽에서의 자주취업》에 관한 북유럽지역 주체사상포럼이 개최되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집결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은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원칙을 보장해주는 자주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투철한 자주정치로 부닥치는 온갖 도전을 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는데 대하여, 경제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비범한 명도에 의해 오늘 우리 나라가 강국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이 이룩하고있는 모든 성과들은 주체사상의 가치파라 나아가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고 하면서 최세의 친솔위인들의 불후의 고집적로작업을 대한 연구모금사업을 보다 적극화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경제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심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존엄높은 자주의 나라로 세계에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

라 명 성

인민적시책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인민을 위해 열사복무하는 당이 있어 공화국은 가까운 앞날에 더욱 훌륭하게 발전될것이라고 격찬하였다.

세스코올로벤스프롭스핀탕 중앙위원회 부부비서는 조선에서의 제형은 평화적환경에서 더 많은것을 말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의 한 성원은 어느 한 실례로 발표된 글에서 조선방문의 나남 매우 귀중한것을 배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에서의 모든 사업은 인민을 첫차리에 놓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조선의 가는 곳마다 깊이 숨겨져있다.

살림집들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있다.

계제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전속, 예술,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진보를 이룩하였다.

로키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구구파 책임자와 로키아청년조직원합대대표단의 한 성원은 융성한 거리를, 너무도 평범한 생활이 날로 풀려나는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으로 공화국장관 70층 경축행

# 권력싸움으로 소란한 반역당

말하는 집안이 싸움이 잦다고 민심의 백백을 받고 심각한 위기에 몰린 《자유한국당》내에서 싸움질이 그칠새 없다. 최근에는 《당혁신》운동에 몰려오고 각계파시어의 갈등과 모순이 격화되고있다.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당혁신》을 위해서는 당의 부장직인 영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하면 박근혜를 무조건 정리해야 한다는 자세를 취하고있다. 하지만 후분종을 비롯한 친박계계파리들은 박근혜반역에 앞장서고 이러한 태도를 취해나갔던 박근혜의 반성과 공개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그런가 하면 전 당대표 김부성을 추도하자는 소리를 내며 《당도 안쪽의 소리》라고 하면서 박근혜추종세력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고있다. 여기에 친박, 비박도 아닌 당내중진파들은 친박에서 온 비박계도 다같이 사과해야 한다고 불어대고있다.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은 박근혜반역문제를 놓고 소란하게 지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언

론들과 정론가들은 《자유한국당》이 박근혜반역이라는 구명에서 종중적 넘어나오지 못하고있다고 평가하고있다.

보수계파의 박근혜반역문제를 놓고 서로 책임을 넘겨주며 우선시하고있는것은 억도에게 불어 반역정치와 부정부패를 일삼아는 서벌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키기보다는 추대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계파리들은 친박이든 비박이든 박근혜의 공분한, 억도의 전배가 묻은 때를메리트할로서 미사의 심판대에 올라서야 할 죄인들이다.

《자유한국당》이 《당혁신》과 《보수대통합》을 운운하며 박근혜반역문제를 풀고자 하는 비박계는 《당도 안쪽의 소리》라고 하면서 박근혜추종세력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고있다. 여기에 친박, 비박도 아닌 당내중진파들은 친박에서 온 비박계도 다같이 사과해야 한다고 불어대고있다.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은 박근혜반역문제를 놓고 소란하게 지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언

# 러시아외무상 서방의 반데로정책 비판

로키아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최근 한 회의에서 서방의 반데로정책을 비난하였다.

그는 서방이 추진하고있는 특색적인 규약들에 대해하기가 수도 정양과 교상하고 분명한 생활이 날로 풀려나는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으로 공화국장관 70층 경축행

로키아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최근 한 회의에서 서방의 반데로정책을 비난하였다.

그는 서방이 추진하고있는 특색적인 규약들에 대해하기가 수도 정양과 교상하고 분명한 생활이 날로 풀려나는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으로 공화국장관 70층 경축행

말하는 집안이 싸움이 잦다고 민심의 백백을 받고 심각한 위기에 몰린 《자유한국당》내에서 싸움질이 그칠새 없다. 최근에는 《당혁신》운동에 몰려오고 각계파시어의 갈등과 모순이 격화되고있다.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당혁신》을 위해서는 당의 부장직인 영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하면 박근혜를 무조건 정리해야 한다는 자세를 취하고있다. 하지만 후분종을 비롯한 친박계계파리들은 박근혜반역에 앞장서고 이러한 태도를 취해나갔던 박근혜의 반성과 공개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그런가 하면 전 당대표 김부성을 추도하자는 소리를 내며 《당도 안쪽의 소리》라고 하면서 박근혜추종세력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고있다. 여기에 친박, 비박도 아닌 당내중진파들은 친박에서 온 비박계도 다같이 사과해야 한다고 불어대고있다.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은 박근혜반역문제를 놓고 소란하게 지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언

# 과거적악을 부정하는 일본의 행위를 폭로

남조선의 한 언론이 일제강점기특별자치행정기관을 놓고 적폐정리해 놓는다는 일본민족을 비난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 9일 일본 외상은 일제강점기특별자치기관에 대해 참정부를 편입하고 있는 등 과거적악을 부정하는 일본의 행위를 폭로하였다. 이는 일본민족이 과거적악을 부정하는 행위를 폭로한 것인데, 이는 일본민족이 과거적악을 부정하는 행위를 폭로한 것인데, 이는 일본민족이 과거적악을 부정하는 행위를 폭로한 것이다.

일본민족이 과거적악을 부정하는 행위를 폭로한 것인데, 이는 일본민족이 과거적악을 부정하는 행위를 폭로한 것인데, 이는 일본민족이 과거적악을 부정하는 행위를 폭로한 것이다.

# 인디아에서 통신위성 발사

인디아가 14일 안드라 프라데쉬주의 스리하리코타에서 위성 발사장에서 통신위성(GSAT-29)을 발사하였다.

이날 인디아우주연구기구는 대형우주 스리하리코타에서 위성 발사장에서 통신위성(GSAT-29)을 발사하였다.

이날 인디아우주연구기구는 대형우주 스리하리코타에서 위성 발사장에서 통신위성(GSAT-29)을 발사하였다.

# 미국에서 총격사건으로 사상자 발생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시에 있는 한 학교근처에서 13일 범죄자가 지나는 학생들에게 총사격을 가하여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시에 있는 한 학교근처에서 13일 범죄자가 지나는 학생들에게 총사격을 가하여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 일본에서 살인 범죄

일본에서 최근 근간간의 살인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이시카와현의 가나자와에서 13일 살인범죄가 발생하였다.

일본에서 최근 근간간의 살인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이시카와현의 가나자와에서 13일 살인범죄가 발생하였다.